



정교회주보

제2524호

2025년 5월 1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부활 후 제4주일
(중풍 병자 주일)
성 키릴로스, 성 메토디오스
사도 대등자
(제3조 • 조과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제3조 부활 찬양송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가송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9,32~42 253
- 복음경 : 요한 5,1~15 99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사진 설명

여섯 날개 천사상

여섯 날개 천사상(사진 왼쪽과 오른쪽)은 금색이나 은색으로 도금된 금속으로 만들어진 원반 형태로, 여섯 날개에 감싸진 세라핌 천사가 양각(陽刻)되어 새겨져 있다. 성찬예배 등의 전례에서 성 십자가와 함께 보통 2개로 짝을 이뤄 사용하는데, 신성한 예배에서 보이지 않는 천사의 존재를 상징한다.

여섯 날개 천사상은 원래 초대 교회에서 사용했던 깃털로 만든 덮개에서 유래했다. 당시에는 성체와 성혈에 몰려드는 날벌레를 쫓아내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보제는 날벌레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것을 들고 부드럽고 느린 동작으로 흔들었다. 이제는 그런 기능이 사라졌지만, 대신에 성찬예배에서 신앙의 신조를 외울 때 성반과 성작 위에서 성보를 흔드는 행위로 대체되었다.

여섯 날개 천사상을 설명하는 성서 구절은 이사야 6,1-2과 요한 묵시록 4,6-8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마하트마 간디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의 사랑, 정의, 그리고 비폭력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간디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배우고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신자들은 그를 차별하며 인종적 편견을 보였고, 이에 간디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과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공허한 관념에 머물게 됩니다.

로마서 12,2에서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 하도록 하십시오."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매여 살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신앙적 결단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교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빛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사랑이 없는 힘은 당신을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영예는 당신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는 당신을 투덜대거나 짜증 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은 당신을 무자비하고 인정사정없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당신을 냉혹하고 잔인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당신을 비판적으로 만들고 비난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성장과 자라남은 당신을 유순하게 잘 다듬어지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당신을 교활하고 간교하고 음흉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당신을 거짓된 위선자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이 잘 정돈되어 질서정연함은 당신을 지나치게 꼼꼼하고 까다롭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당신을 포악하고 압제적인 군주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재산과 소유는 당신을 인색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당신을 광신자로, 극단주의자로 만듭니다.
아, 슬프도다! 사랑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처럼 편협하게 중독되었을 때,
그들을 탓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실제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당신 또한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간 예배 안내

* 5월 14일(수)
오순절 중앙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알림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늘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이웃들과 함께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축제에 많은 준비와 참여 바랍니다.

■ 가평 수도원 봉사활동

지난 1일(목)부터 3일(토)까지 서울 성당 장년회와 신데즈모스 회원 약 20명이 가평 주변모 수도원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실내 청소 및 정리 정돈(페인트칠, 계단 청소, 베란다 정리), 외부의 잡초와 넝쿨 정리,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묘소의 낡은 기와 정리 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 성당 결혼 성사

지난 주일(4일), 성찬예배 이후 성 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김 아르카디와 박 올가 교우의 결혼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수고와 시련을 견뎌내는 행복

영성의 샘터

코프리스 사부는 자주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수고와 시련을 참고 견뎌내는 수도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언젠가 사부가 심한 병을 앓게 되었는데 형제 수도자들이 그의 놀라운 인내심을 보며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단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잠시도 떠난 적이 없었다.”

